

연결과 소통, 지구촌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종합정보지

PEACE TUNNEL

magazine

통권 20호 3
MARCH 2014

통일 땀 11% 성장... '완전한 대박' | 신창민

내 생각에는 | 정태익
1894년 갑오년이 2014년 갑오년에 주는 교훈

인물탐방 | 허재완
“낙후된 구도심 개발 새 성장거점 마련 시급”

COVER STORY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



발행일 2014년 3월 1일

발행인 이용흠
편집장 정성수
사진 이장환
디자인 장인선
인터넷 김주홍
독자관리 안현열

발행처 세계평화터널재단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번지

등록 2010년 9월 3일
등록번호 영등포 마 00016

전화 02)3471-7698
팩스 02)3471-7694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통일논의의 공론화에 불을 당겼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본지는 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실천요강과 한국잡지협회의 잡지판매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합니다.

CONTENTS

커버스토리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

- 05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한국이 주도해야 | 장용석
- 10 통일땀 11% 성장... '완전한 대박' | 신창민
- 14 차대통령, 통일논의 공론화 불당겼다 | 이관세
- 19 '동북아 평화 협력' 유라시아 공조가 핵심 | 안병민

- 24 내 생각에는 | 1894년 갑오년이 2014년 갑오년에 주는 교훈
| 정태익
- 26 인물탐방 | 한국도시계획의 좌장 허재완
“낙후된 구도심 개발 새 성장거점 마련 시급”
- 32 지상중계 | “한미동맹 기반 한중 협력 조화외교를” | 김성환
- 40 NEWS & ISSUE |
유나이티드 유라시아 철도 건설 논의 본격화
“한일해저터널 건설 양국관계 개선해야”
中, 세계최장 해저터널 건설 나선다
- 42 발행인의 편지 | 남북통일 넘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 이용흠

정기구독 안내

● 정기 구독료

- 1년 정기구독료 18,000원
- 정가 3,000원

● 구독 안내 전화

02)3471-7698

● 인터넷 구독신청

info@fpu.kr

連結と疎通、平和の道を開く海底トンネルの総合情報誌

PEACE TUNNEL

Magazine

通巻 20 号

MARCH 2014

3

統一のとき 11%成長・・・ ‘完全な大当たり’ / シン・チャンミン
私の考えは / チョン・テウ
1894 年の甲午年が 2014 年の甲午年に与える教訓

人物探訪 / 未来伝道師 ホ・ジエウン
“遅れた旧都心開発、新たな成長拠点の準備が急務”

カバーストーリー

‘統一大当たり’ で行く道

目次

発行日 2014年3月1日

発行人 イ・ヨンム

編集長 チョン・ソンス

写真 イ・ジヤンファン

デザイン チャン・インソ

インターネット キム・ジユン

読者管理 アン・ヒョンヨル

発行所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
150-036 ソウル市永登浦区永登浦洞
6街7番地

登録 2010年9月3日

登録番号 永登浦 마 00016

電話 02-3471-7698

FAX 02-3471-7694

カバーストーリ ‘統一大当たり’で行く道

05 平和的統一の基盤づくりは韓国がリードすべきだ / チャン・ヨンソク

10 統一のとき11%成長… ‘完全な大当たり’ / シン・チャンミン

14 朴大統領、統一論議の公論化に火をつけた / イ・ガンヒ

19 ‘東北アジアの平和協力’ ユーラシア共助が核心 / アン・ピョンミン

24 私の考えは / 1894年の甲午年が2014年の甲午年に与える教訓 / チョン・テイク

26 人物探訪 / 韓国都市計画の座長 ホ・ジエフン
“遅れた旧都心開発、新たな成長拠点の準備が急務”

32 誌上中継 / “韓米同盟を基盤に韓中協力 調和外交を” / キム・ソフファン

40 NEWS & ISSUE
ユナイテッド ユーラシア鉄道建設の議論本格化
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 両国関係を改善すべき
中国、世界最長の海底トンネルの建設に乗り出す

42 発行人の手紙 南北統一を越えユーラシア主導へ / イ・ヨンム



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は、去る1月6日、就任後初となる新年の記者会見にて、ある記者の質問に対し「統一は“大当たり”」と言及したことで統一論議の公論化に火をつけた。写真はパク大統領が青瓦台の春秋館で開かれた新年記者会見で執権2年目の国政運営構想を表明している。

本誌は雑誌倫理委員会の図書・雑誌倫理秩序要綱と韓国雑誌協会の雑誌販売公正競争の規約を順守する。

定期購読案内

- 定期購読料
 - ・ 1年定期購読料 18000ウォン ・ 定価 3000ウォン
- 購読案内電話 02-3471-7698
- インターネット購読申請 info@fpu.kr